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여야대표에게 듣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여수박람회 관람객 200만 돌파

초기간권 50% 할인, 야간·청소년권도 인하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개막 40일만인 20일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하루 5만명꼴이다. 조직위 목표 관람객 수 800만명을 채우려면 남은 53일 동안 하루 평균 11만3000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전기간권을 50%가량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관람객 유입책을 내놔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현재 관람객은 3만6936명이 입장했고, 누적관람객 수는 202만6288명을 기록했다. 목표 관람객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6만여명이 더 와

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조직위는 오는 28일부터 성인 기준으로 20만원인 전기간권을 10만원에, 청소년과 어린이, 경로 전기간권도 각각 7만5000원, 5만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야간권은 성인기준으로 1만6000원에서 1만원으로 6000원도 신설해 5000원에 판매한다.

특히 학생단체권의 가격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가격과 시행 시기는 곧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또 국가공유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는 오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간 30명 이상 단체에 대해 1인당 1000원(인솔자 1인도 적용)하는 특별초청권을 발행한다.

외국인 관람객 지원 방안도 마련했

다. 여행사를 통해 온 외국인 관람객에 대해서는 별도 관람신청을 받아 예약제 전시관 2개관 관람 보장, 공연장 좌석 확보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의 숙박 편의를 위해 여수시내 대학교 기숙사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박람회장 개장시간도 25일부터 오전 9시~오후 11시에서 오전 8시 30분~10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진다. 토·일요일·공휴일은 오전 8시~10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조직위 배정한 대변인은 “오랜 기간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준비해온 박람회 시설과 교육적 콘텐츠를 더 많은 국민이 관람하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 =임문택기자 mtm1@

갯벌생물 전시 전남도관 인기

관람객 15만명 다녀가

갯벌과 갯지렁이 등 살아있는 갯벌생물을 전시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전남도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박람회 관람객 중 15만여명이 전남도관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전남도관은 지자체 다른 지자체 전시관과의 차별화된 전시 연출로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 관람객들의 전체

지자체관 방문을 견인하고 있다.

강철과 무늬목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 전시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목재와 청기와를 소재로 한 전통 한옥으로 꾸며져 신선함을 주고 있다. 또 대형 갯벌생태수조 안에는 갯지렁이·농게·칠게·짚뚱이·말뚝망둥이 등 살아 움직이는 갯벌생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전남도관 내부에 설치된 염전모형은 천일염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교

육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고, 천장의 대형 낙조조형물은 포토존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안경원(43·울산시 무거동)씨는 “다른 지자체는 동영상이나 사진위주로 전시하는데 전남도관은 살아있는 실제 갯벌과 생물을 전시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현재까지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198만9352명 중 전남도관 방문객은 15만1748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자체관 관람객(20만9417명)의 72%에 해당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바라크 훈수상태

메나통신 “임상적 사망상태”

수감 중이던 호스니 무바라크(84) 전 이집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병세 악화로 인해 외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훈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현지 병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AFP와 로이터 등의 해외 언론들은 현지 보안 소식통이 “무바라크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고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오픈 프라이머리 난제 많아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의 인터뷰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호남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책으로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개원은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민주통합당) 정치 현안을 개원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불신했



■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는

국회내 ‘개선특위’ 만들어

수입-지출 균형 맞춰줘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한다.

-종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안위 노심초사’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쑤에 있다. 국가안위는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노심초사해야 할 일이다. 자유 민주주의 수호는 헌법 제1의 가치라는 점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헌법에 대한 충성심과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의) 부정 선거는 구체적인 법률 문제로 검찰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종북 논란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내에 국가 안위를 수호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반 법률과 국회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위 내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학벌사건이 최근 무죄 선고됐다. 당시 배석 판사로서의 입장은.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사법부에 누가 될 수 있다.

-경선 룰도 ‘뜨거운 감자’다.

▲경선 룰은 이미 당헌에 정해져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논의해 당의 의사를 절반, 국민 의사를 절반으로 하는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로 정해졌다. 시기는 늦었지만 후보들 간의 이견이 조정되든지, 당헌 개정 의사가 모아지면 최고위,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을 할 수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200억~3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당으로서는 부담하기 어렵다. 입법을 통해 세금으로밖에 할 수 없고 역선택 등 난제들이 많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등 당 대 당의 정치적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선 후보들 간의 합의와 의총 등을 통한 당내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등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경선 룰의 절충점 도출은 가능한가.

▲(절충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어느 때가 되면 룰을 잡아서 할 것도 필요한데 지금은 후보마다 애기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원탁회의 주장도 진전이라고 본다. 하지만 어느 분은 출마 선언도 안했고, 어느 분은 후보 등록도 안 했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루 이를 생각하면서

타진을 해보고, 뜻밖에 잘 풀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당내 문제인 만큼 내부적으로 조율조율했으면 좋겠다.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에 지방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지방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유지가 된다. 안 그러면 지자체부터 파산한다. 지자체가 어려운 것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 이외에는 주수입원이 없다. 복지를 강화하다 보니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매칭 펀드로 하니 지방재정에 재료가 없어졌다. 이대로 두면 전체 (지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창안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그것을 위해 지방재정개선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 맞대고

■ 호남 배려 방안은

젊은 세대들 호응도 높아

특위 구성 호남 발전 견인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한 균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에 대한 입장은.

▲호남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호남 민심은 이제 “너희들 하기에 따라서 화끈하게 지지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옛날 같으면 솔직히 태도 없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의 정운천 후보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광주 의 이정현 후보가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 특히, 호남 지역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구체적인 호남 배려 방안은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했다. 특정 지역 특위를 따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내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 진심은 통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부산일보 박희만 기자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역세권 6층 의료시설 대지290평 건평930평감정가22억 최저가14억
- ▷남구 주월동 2층주거 4층 상가주택 대지67평 건평155평 감정가14억7천 최저가3억
- ▷영광군 영광읍 2층주거 2층 상가주택 대지153평 건평90평 감정가2억 최저가1억1천
- ▷남구 백운동 준주거지역 3층 상가주택 대지48평 건평100평 감정가3억2천 최저가2억2천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광산구 월계동 2층주거 4층 다가구 대지131평 건평197평 감정가6억6천5백 최저가5억3천
- ▷서구 화정동 주거지역 2층주택 대지70평 건평 56평 감정가1억8천 최저가1억4천

공장 / 창고부지

- ▷북구 양산동 공업지역 대지1800평 건평 1530평 감정가29억3천 최저가18억8천
- ▷광산구 임곡동 준주거지역 대지233평 건평22억2천 최저가19억6백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무안읍 신학리 기업도시부지 농림지역 답3,000평 매매1억5천

남구 월산동 통고가격 1번 출구 / 신원은행 4층(구 전남경찰청 47번)
☎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 노인병원 등 적합, 동구 대지 164평 건평 1200평 19억
- 요양시설 등 적합, 화순군 도곡대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 요양병원 시설 적합, 담양군 청평면 대지 698평 건평 629평 16억
- 요양시설, 병원, 연수원, 종교시설 적합, 완도군 완도를 43184평 17억
- 충장로 4가, 대지 141평 건평 620평 비상가 37억5천 매도 18억5천
- 황금동 상가와 원룸, 대지 90평 건평 299평 전세 8천에 월800만원선 수입 대출 3억6천 공사지가에 매도 6억4천
- 순천시 장전동 5층 건물 대지 88평 건평 488 대출 4억 매도 6억2천
- 농성동 다가구 40세대와 상가 대지 313평 건평 358평 임대사업에 적합 5억6300만원
- 유동 로터리 대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병원, 사육, 요양시설 적합 법인이전 25억

나대지

- 공장부지 함평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접합을 2억8천
- 화정동 6차선 도로 준주거 106평 공사가 5억3400 매도 5억6200만원
- 누문동 8차선 도로 공사가 6억천 대출 4억5천 매도 4억8천
-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거리 코너 공사지가 4억7천 매도5억3천

시골주택 및 주택지

- 함평 읍대면 대지100평 사용 주택 17평 1800만원
- 화순 남면 대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할 15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57평 대출 4천 매도 5천3백
- 장성 서삼면 금계리 대지 3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매도·교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2층 주거지 502평 다세대 적합 대출 5천 매도 1억6천
- 북구 우산동 대지 100건평 413 전세 7천에 월 800선 수입 대출 6억 매도 10억 5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고고용센터 옆

매매교환전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골프장
및 음식점을
급매매로 찾습니다.

매수매도대기중

30년 부동산 중개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 (상가빌딩매매)

- * 서구 쌍충동 상무2지구 상가빌딩 대지 104평 건평 310평
- * 남구 신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2181평
- * 남구 월산동 상가주택 대지 9500평 건평 2855평
- * 북구 신원동 전대점포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 북구 우암동 동강대후문 원룸 대지 71평 건평 98평 방15실
- * 북구 상곡동 식당건물 면적 975평(식당및주차장)
- * 광산구 수원동 상가주택 대지 98평 건평 149평
-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 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약 4000평
- * 나주시 대호동 동산대부부 상가주택 대지 119평 건평 700평
-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모든건물 현상임! 임대수익 보장!

광고물건 (토지매매)

- * 상무지구 운천저수지 47번 부근 대지 약 1000평 매매
- * 서구 서창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 948평
- * 북구 우암동 전통상업지역 대지 500평
- * 광산구 송정동 대지 500평
- * 광산구 송산유원지 부근 대지 1010평
- * 광산구 수원동 대지 10,737평 잡종지, 자연녹지
- * 장성군 남면 행정대지 5300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 * 담양군 대덕면 송곡리 대지 5000평 잡종지, 보전관리지역
-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3200평 도시지역, 자연녹지
- *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대지 1900평 계획관리지역

956-6660·010-2139-6255

양산동 원룸용 토지 매각

【지 목】

대 지

【면 적】

692㎡ (209.7평)

【용도지구】

1층 일반주거지역

【추천 용도】

원룸, 단독주택 적합

【위 치】

동림 IC 5분거리

첨단2지구 인근

【특 징】

남향의 직사각형

토지로 활용도 우수

【매도가격】

170만원/평

【연락처】

010-2067-7103(주인직접)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양산동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1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건평 : 460평

-보증금 3억5천만원/월1600만원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주유소 매매 (동구)

-대 지 : 300평

-최고 매출

-매매가 상담후 결정

첨단산업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투자자 모십니다

1억 - 5억 투자자 모심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